DAY 56–60 · 6부 앞으로

# 6부 총정리 — 앞으로

AGI 논쟁부터 배우는 순서까지 · 짧게, 비유로 · DAY 56-60

시험 없음 — 읽고 넘어가는 복습 자료

# AGI 왔냐 아니냐는 기준선 다툼이야

1. AGI는 '사람만큼 두루 잘하는 AI'를 가리키는 말이야. 그런데 어디까지 해내야 그렇게 부를지는 정해진 게 없어.

2. 기준을 낮게 그으면 지금 AI는 이미 통과, **높게 그으면 아직 미달**이야. 같은 AI를 놓고 답이 갈려.

3. 그래서 누가 'AGI 왔다'고 하면 먼저 물어볼 건 하나야 — 기준이 뭔데?

# 사라지는 건 직업이 아니라 조각이야

1. 일 하나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. 모으기 · 만들기 · 고르기 · 책임지기.

2. AI가 빠르게 가져간 건 앞의 두 조각이고, **무엇이 맞는지 정하고 책임지는 조각은 사람 쪽**에 남아.

3. 그래서 직업이 통째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뒤로 밀려.

# 안전은 성격이 아니라 붙여 놓은 장치야

1. AI 안전은 모델을 착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야. 모델 위에 하나씩 덧붙이는 장치야.

2. 장치는 세 가지야 — **거절하기 · 하기 전에 물어보기 · 나중에 들여다보기**.

3. 붙이면 진짜로 달라지는데 공짜는 아니야. 계산이 더 들고 멀쩡한 부탁까지 거절하는 일이 늘어.

# 로봇의 앞쪽 세 조각에 AI가 들어갔어

1. 요즘 로봇이 똑똑해 보이는 건 몸이 좋아져서가 아니야. 뇌 자리에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AI를 꽂았기 때문이야.

2. 눈 · 말귀 · 판단 조각에는 AI가 들어갔고, **손과 다리를 움직이는 조각은 여전히 기계 기술**이야.

3. 그래서 진짜 어려운 쪽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야. 균형은 1초에 수백에서 수천 번 잡아야 하거든.

# 준비물은 새 지식이 아니라 순서야

1. 60일 내내 반복해서 나온 답은 하나였어 — 묻고, 확인하고, 직접 해 보고, 내 말로 설명하기.

2. 도구는 몇 달마다 바뀌지만 **배우는 방법은 안 바뀌어**. 그래서 오늘 익힌 순서가 내년에도 쓸모 있어.

3. 막히는 건 실패가 아니라 순서의 한 칸이야. 막힌 데를 다시 묻는 게 다음 칸이거든.

# 앞으로를 묻는 질문은
# 대부분 우리 쪽을 묻고 있어.



다음 주부터는 매주 한 편, 그 주의 AI를 본다.